

개교 30주년 학생들의 역사를 되돌아보다!

우리 대학을 빛낸 모교 출신 교수와 선수



▶디지털콘텐츠학부 이동훈 교수



▶컴퓨터정보공학부 정도운 교수



▶디지털디자인학부 서한석 교수



▶동서대졸업생 이영은 선수

개교 30주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우리 대학이 배출한 인재도 꽤 많다. 이번 우리 대학을 졸업한 박경미 졸업생이 제작한 농심 신라면 광고가 뉴욕 시티투어버스 전면에 그려져 곳곳을 달리면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시카고디자인을 전공한 박경미 졸업생은 우리 대학 해외취업지원 프로그램인 'K-Move 스텝'을 이수하고 이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 1월 미국 LA 광고대행사인 팬 컴 인터내셔널에 취업했다. 팬컴 인터내셔널은 농심 아메리카로부터 신(辛)라면 광고 의뢰를 받았고, 박경미 졸업생이 이 광고를 주도적으로 제작하게 됐다.

디지털콘텐츠학부 이동훈 교수가 개교와 함께 입학한 모교 출신으로 첫 번째 동서대 교수가 됐다. "1992년 동서대에 처음 입학했을 당시에는 학교가 어디 붙었는지 도 잘 몰랐어요. 이제는 밖에 나가보면 다들 '잘 나가는 대학'으로 대우해주고 있어요. 저 스스로도 동서대 위상변화에 껍질 껍질 놀랄 때가 많아요"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모교 출신 교수들도 받은 충격이 대단했다. 우리 대학에 졸업 후 모교 강단에 선 교수들은 '충격적이다', '정말 놀랄다'라는 등의 표현으로 우리 대학의 발전

모습을 설명했다. 기획평가처에 따르면 모교 출신 교수는 벌써 3명으로 늘었다. 이동훈 교수는 2004년 9월, 컴퓨터정보공학부 정도운 교수는 2005년 3월 임용됐다. 디지털디자인학부 서한석 교수는 2006학년도 신입 교수로 최종 확정됐다. 동서대 역사가 개척기를 거쳐 이제 큰 뿌리를 내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교 2년째에 입학한 정도운 교수는 졸업 후 부산대 석사·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우리 대학을 꼭 지켜봤는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모습에 가슴 뭉클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에는 누리사업 선정 등 의욕적으로 대학이 많이 알려졌는데 이제는 진짜 실력으로 외부에서 인정해주는 것이다. 정 교수는 "우수사례 발표회·학회에 나가 우리 대학의 사례를 발표하면 세칭 명문대학 관계자들이 우르르 몰려와 자문을 구하고 벤치마킹을 합니다. 우리 대학은 이제 실력으로 확실한 입지를 굳혔다는 것을 실감합니다"라고 전했다.

내년 3월 우리 대학 강단에 서는 서한석 교수는 "디지털디자인에서 처음으로 모교 출신이 교수가 돼 책임감이 무겁다"라며 "후배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고 싶다"라고 밝혔다. 모교 강단에 선 교수 3명은 애정이 남다르다. 돈을 생각했다면 다른 길을 갔을지

모르나 모교에서 후배들을 가르치고 모교 발전을 위해 땀을 흘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여겨 모교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이동훈 교수는 "경북대·안동대에서 시간 강사를 했지만 모교의 후배들을 가르치는 것과는 느낌이 확연히 다르다"라며 "동서대 졸업했다는 것을 모든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전력을 쏟는다"라고 역설했다. 정도운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학 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는 일"이라며 "패배감을 떨쳐버리고 자신감을 가질 때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대학 레저스포츠학과 졸업생인 이영은 선수가 '제15회 대한요트협회장배 전국요트대회 겸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영예의 1위를 차지했다. 이로서 이영은 선수는 오는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신설된 '포들러 카이트' 여자부 국가대표로 선발돼 태극마크를 달게 됐다. '포들러 카이트'는 2024년 파리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신설되는 등 해양 스포츠의 중심 종목으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국내에서 비인기 종목으로 어려우려 환경에서 도전장을 이어온 이영은 선수는

각종 국내외 대회서 꾸준히 성적을 내어왔다. 수년간 전국 카이트보드 대회에서 1위를 유지했고, 2018 Thailand Kiteboarding Championships 프리스타일에서도 아시아 챔피언에 올랐다. 이영은 선수는 "국가대표라는 목표를 이루어서 정말 행복하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해서 국내 해양스포츠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라며 "어려운 환경에서도 몰입감으로 지원해 주신 부산요트협회, 동서대학교, 한국 카이트보드협회, 다대포 해양레포츠센터 등에게 감사드리고 부산을 대표하는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 대학에서 ▲멀티미디어디자인 전공 석사학위 ▲영상콘텐츠학과 박사학위를 받은 인도네시아 마르쿠스 산토스(Markus Santoso)가 올해 9월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Montclair State University 조교수로 임용됐다. 장제국 총장은 산토스씨의 임용소식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잠 성실하고 우수한 학생이었는데, 이제 학자로서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더욱 건승하시길 기도드린다"라고 전했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부산 고교생 영화 관련 진로진학 지원

영화 진로동아리 '나의 꿈, 레디 액션!'



▶2022 영화 진로동아리 '나의 꿈, 레디 액션!' 업무 협약식

지난달 5일, 우리 대학 임권택 영화연구소는 섀넌캠퍼스 민석 소극장에서 부산시 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와 2022 영화 진로동아리 '나의 꿈, 레디 액션!'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영화 관련 진로진학 지원 사업에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시 미래교육원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주최하고 우리 대학 임권택 영화연구소가 주관하는 나의 꿈, 레디 액션 사업은 부산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부산지역 특성을 살린 영화 관련 진로체험, 영화 제작 체험을 통한 문화 예술 합류 기회, 진로체험 지원을 통한 진로역량 강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진로 미결정, 특수교육, 이주 배경, 학교 부적응 학생 등에게 진로개발 역량을 함양시키고 창의성과 감성을 키우는 체험 중심의 교육 시행을 통해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결정에 도움을 준다. 나의 꿈, 레디 액션은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총 7회의 과정으로 우리 대학 섀넌캠퍼스에서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임권택 영화예술대 영화과 교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나리오 작성 및 콘티 제작, 영화 제작 기술 교육 및 실습, 편집 및 후반 작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 대학은 이 구절처럼 뜨거운 가슴과 혼을 바쳐 무려 100편의 영화를 만든 임권택 감독이 지나온 역사를 한자리에 전시하는 '임권택 영화연구소'를 이곳에 개설했다.

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임 감독의 역사는 한국 영화 역사나 다름없어 임권택 영화연구소의 역할과 의미는 대단히 크다. 임권택 영화연구소에는 그의 첫 번째 영화 '두만강이 잘 있거라'에서 100번째 영화 '천년학'에 이르기까지 임 감독의 발자취가 모두 전시돼 있다. 전시된 자료를 보면 임 감독의 영화가 담긴 비디오테이프와 DVD, 손때 묻은 시나리오, 포스터, 임 감독에 대한 논문과 책들이 모여져 있다. 또 베니스영화제 황금곰상을 비롯한 영화제 트로피와 임 감독 작품 사진, 촬영 현장 사진, 국내외 영화제 수상 사진 등을 볼 수 있다. 특히 '천년학' 기획에서 제작, 마케팅, 배우 의상, 소품에 이르기까지 영화제작의 전 과정을 전시한다.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들이 관련한 영화가 어떻게 제작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영화연구소는 영화 상영실도 만들어져 있다. 우리 대학은 "앞으로 임권택 감독을 연구하려면 이곳에 오면 되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임 감독과 관련한 자료를 계속해서 축적해 나갈 예정이다. 임권택 영화연구소에 대해 영화전문 박사급 교수는 "100편의 영화를 만든 임 감독의 역사는 바로 한국 영화의 역사"라며 "단순히 영화인 한 사람의 발자취를 모아 두었다기보다는 한국영화 역사를 전시한 것이나 다름없다"라고 설명했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문화콘텐츠 특화 SW융합인재 양성

SW중심대학 중 3번째로 많은 과제 확보



▶동서대 SW학과 학부생연구(URP)사업 AI분야 전국 최다 확보

우리 대학 SW융합대학은 SW융합교육 핵심 인프라이자 SW중심대학 사업의 교육부분 중심 거점이다. 5개 SW중심학과(SW학과, 정보보안학과, 게임학과,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를 두고 개별 전공과 'AI 공학', '빅데이터' 2개 'AI 심화 트랙'을 운영한다. 우리 대학과 SW중심대학사업단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교육을 목표로 문화콘텐츠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소프트웨어(SW) 융합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AI 전공 SW융합인재를 길러내는 2개 AI 심화 트랙은 우리 대학 SW융합교육의 지향점을 알 수 있는 교육 과정이다. 5개 SW중심학과 학생 200명 모두 기본 전공과 15개 이상 AI·빅데이터 과목을 이수해 AI·빅데이터 부전공 및 복수 전공 학위를 받는다.

우리 대학 SW중심학과 학생은 전국 SW중심대학 가운데 세 번째로 많은 URP AI 분야 7개 과제를 확보했다. 5개 SW중심학과와 SW비전공 일반학과 의 교과목을 연계한 'SW연계전공과정'도 우리 대학 SW융합교육의 특징적이다. 현재 AI 콘텐츠, 사이버경찰 보안, AI 경험 디자인, AI 로봇, 영어-일본어-중국어 SW융합, XR 콘텐츠 등 6개 SW연계 전공 과정을 운영한다. SW비전공 학생은 전공을 폭넓게 응용할 수 있는 AI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 SW연계전공 가운데 'AI 콘텐츠' 과정은 우리 대학 특성화 분야인 영화, 뮤지컬 등 문화콘텐츠에 AI를 접목해 응용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 '사이버경찰 보안' 과정은 SW중심학과인 정보보안학과와 SW비전공 경찰학과를 연계해 포렌식을 비롯한 디지털 범죄 수사에 특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

'AI 콘텐츠' 전공 학생은 지난해 11월 실제와 가상 배우를 동시에 케스팅한 '혼합현실(MR) 메타버스 뮤지컬'을 공연해 호평을 받았다. 문미경 단장은 "SW융합전공과 SW연계 전공을 양적으로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AI-SW융합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라며 "기존 대학 SW교육 과정의 문 제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교육시스템에 반영해 SW교육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인 점도 동서대 SW교육만의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대학 신입생 전원은 교양필수로 코딩 과목을 이수한다. SW중심대학사업단은 코딩 과목 이수가 부담스러운 문리대나 예술대, 체대 학생을 배려해 체험형 커리큘럼을 개발, 교양선택으로 제공하고 있다. 우리 대학 SW중심대학사업단은 지난해 AI 코리아 전시회에서 생각으로 제어하는 로봇을 시연했다.

SW융합교육과 SW가치 확산도 사업단 주요 사업으로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다. 시민 AI 인식 확산을 목표로 매년 'AI가 바꾸는 미래 세상 콘텐츠 공모전'을 전국 단위로 진행한다. 초·중·고 교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고교 SW동아리 연계 교육, 중학교 자유학년제용 AI-SW교재 개발 등을 공동 진행하고 있다. 문 단장은 "대학 차원에서 AI-SW융합 교육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혁신해 적용하고, 지역사회에 AI-SW교육을 확산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계속 발굴 운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동서대 AI 교육 플랫폼과 양성한 우수 인재를 기반으로 대학과 기업이 상생하는 AI 융합 R&D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민석도서관 독서클럽, 우수사례 선정

민석도서관 2022학년도 1학기 독서클럽 구성



▶2021-2학기 독서클럽 최우수, 우수팀 시상식

민석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독서클럽은 2012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독서를 통한 지식 정보의 획득,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 배양, 토론문화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 대학의 도서관은 1992년 동서공과 대학의 개교와 더불어 그 역사를 시작했으며 그동안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추구하며 지식정보 센터로서 교수와 학생들의 요구를 원활히 지원해 왔다. 1995년에 들어서 우리 대학은 대학 및 지역사회의 중추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도서관전산화 토털시스템을 가동하고 국내 최초의 첨단시설 Audio&Visual Library를 개관했다. 이로써, 다양한 학술정보를 좀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는 완벽한 시설 및 건넌트, 특성화된 자료를 가지게 돼 지역사회와 대학도서관 및 연구기관과의 상호협력체제의 중심기관으로서 자리잡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명실상부한 대학의 심장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연구 지원기능을 강화하게 돼 21세기 세계화를 지향하는 종합 학술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수 있게 됐다.

프로그램 선정, 2021년 학습역량 프로그램 중 기초학습 영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매 학기 민석 도서관에서 정해준 3권의 책을 무료로 제공받고, 몇 주에 걸쳐 책을 읽고 활동 기록서도 쓰고 서로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2022년 1학기 프로그램 모집은 2월 28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됐으며 모집 결과 총 25팀 201명(멘토 21명, 학생 18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간호학과(36명)와 연기과(31명)의 지원율이 높게 나타났다. 독서클럽은 5~10명의 멘토와 팀원들이 주 1회 이상 자율 토론 모임과 3주 차 공식 토론 모임을 갖고, 도서 3권의 독후감과 자율모임 리포트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월 23일~24일 양일간 각 팀의 조장과 회원에게 04를 진행했으며, 자율토론 모임, 공식 토론 모임, 발표회, 독후감 작성 등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학생에게는 도서관 특별회원 등록, 개인 도서 제공(3권), 학습 포인트, 우수 팀 시상(총장상과 시상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게 된다. 이번 학기 지점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정의'가 추천작이다.

최혜미 기자
qpfhszlk1542@gmail.com

IPP장기현장실습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학점도 받고, 학비도 벌고, 실무도 배우는 IPP

학점도 받고, 학비도 벌고, 실무도 배우는 IPP

2022-2학기 IPP장기현장실습 참가자 모집

5/9~5/24 18시

<p>모집안내</p> <p>Type 1. 재형영: 현장실습 4개월 2. 채용연계형: 현장실습 수료 후 채용 전환</p> <p>실습기간 2022년 9월 1일 ~ 12월 31일 (4개월)</p> <p>실습시간 1일 8시간, 주 5일 (1주 40시간)</p> <p>참가대상 3~4학년 재학생 (2022년 기준) ※ IPP장기현장실습 참가조건을 반드시 꼭 지켜주세요 (4학년 필수)</p>	<p>참가혜택</p> <p>학비지원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보장</p> <p>학점인정 전공선택 15학점 부여(P/N)</p> <p>전공역량강화 전공분야 현장경험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p> <p>취업연계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설계 및 취업연계</p> <p>신청방법</p> <p>동서대학교 IPP사업단 홈페이지(ippdongseo.ac.kr)에서 참가신청 ※ 사전상담 가능(스튜던트프라자 3층 IPP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p>
--	--

▶ IPP장기현장실습 참가자 모집 안내

우리 대학의 IPP사업단에서 IPP장기현장실습 참가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장기현장실습이란, 대학교 교과과정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4개월) 이수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제도다.

이번 모집에서는 체험형과 채용연계형 장기현장실습 참가자를 모집한다. 체험형은 4개월간 이루어지고, 채용연계형은 현장실습 수료 후 채용으로 전환된다.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IPP장기현장실습 모집 기간은 5월 9일부터 5월 24일 18시까지다.

신청 방법은 우리 대학의 IPP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혹시 고민이 된다면, 스튜던트프라자 3층에 있는 IPP 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사전에 상담이 가능하니 한 번 도전해보자.

실습 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이루어진다. 실습시간은 1일 8시간이며, 주 5일간 이루어진다.

참가자들에게는 ▲학비지원: 실습지원비 최저임금 보장 ▲학점인정: 전공선택 15학점 부여(P/N) ▲전공역량강화: 전공 분야와 관련된 현장 경험을 통한 실무역량 강화 ▲취업연계: 현장실습을 통한 취업설계 및 취업연계의 혜택이 주어진다.

IPP장기현장실습 진행 절차는 참가 신청 이후, 지도교수와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1차 서류와 2차 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그리고 IPP전담교수와의 상담을 통해 참가자에게 적합한 기업이 매칭된다. 매칭 후에는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매칭된 기업에서 현장실습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현장실습이 끝난 후에는 사후평가와 성과보고회가 이루어진다.

다음으로는 지난해 IPP장기현장실습으로 제주시화월동에 다니는 호텔경영학전공 4학년 김경화 학생의 생생한 후기다.

“저는 IPP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실습기업에서 일을 잘한다고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참가했습니다. 제가 인정받게 된다면 다음에 올 후배들에게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습 기간에 일을 미루거나 남이 해결해줄기를 기다리지 않고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또한, 실수에 대한 피드백이 있을 때마다 잊지 않고 고쳐나갔습니다. 그 결과 함께 실습했던 실습생 중에 가장 좋은 평가와 인정을 받아 정직원인 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위치까지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고객님들에게 제공한 서비스가 서비스 만족

로 이루어져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경험은 제게 크게 다가와 이 직무가 저와 잘 맞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IPP실명회 때 장기현장실습이 끝나면 4학년 때 일학습병행을 연계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현장실습으로 호텔리어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스펙을 늘려서 일학습병행을 도전할 생각입니다. 일학습병행을 통해 취업까지 계속 호텔리어로 일하고 싶습니다. 현장실습을 고민하는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면 모르는 것이 대부분인 게 당연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때부터 알고 행동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지 않고 행동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질문한다고 해서 짜증나고 싫어하는 선배는 없습니다. 오히려 ‘적응하기 위해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좋은 인식이 생길 것입니다. 또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실패한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도전하면 되고 실패한 경험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은 늦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도전했으면 합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리어를 꿈꾸는 학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유니폼을 입는 순간 IPP현장실습이 아닌 호텔리어입니다. 그에 맞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고객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실습생인지 직원인지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난 실습생이니까 뭐해도 된다’가 아닌, 직원들만큼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척’을 하다 보면 ‘척’이 아닌 곧 ‘나’가 됩니다. 힘들더라도 현장실습을 통해 호텔리어로서 성숙해지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한편, 장기현장실습 외에도 IPP사업단에서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연계를 통해 현장실습 기회 확대 ▲지역 중소기업 채용 미스매칭 최소화 ▲대학 생활 중 현장실습을 통해 직무역량 및 조직 적응력을 강화해 졸업과 동시에 취업이 가능하도록 진로 설계 ▲전공 특성 및 개인별 상황에 맞춘 현장실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트랙을 다양화했다. IPP사업단 내에 학년별/단계별 로드맵이 있으니 관심이 있다면 지원해보자.



▶ 호텔경영학 전공 김경화 학생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 학부장 인터뷰 - 관광계열 학부장 김봉기 교수

커리어빌드업 시스템을 통한 맞춤 교육



김봉기 교수

Q.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관광계열 학부장 김봉기 교수입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학생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Q. 학과 소개 부탁드립니다.

A. 우리 학과는 작년에 관광경영전공과 이벤트컨벤션 전공이 통합하여 생긴 학과입니다. 그동안 학부 체제에서 호텔경영 전공을 포함하여 3개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다가 지금은 우리 학과와 호텔경영학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과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학과는 관광산업의 경영 전반을 포괄하는 매우 폭넓은 학습 영역을 자랑합니다.

Q. 학과의 진로와 전망은 어떤가요?

A. 학생들의 진로와 관련한 직군은 공기업, 항공여행업 분야, DMO 관광유관기관 분야, 관광사업 분야, MICE 기획 분야, 이벤트 분야 및 벤처 창업 등으로 정말 다양합니다.

비록 지난 2년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관광산업은 큰 피해를 보았지만, 조만간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제약을 겪었던 우리 학생들의 취업전선도 조만간 완벽하게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학과만의 체계적인 커리어 빌드업 시스템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시스템인가요?

A. 커리어 빌드업 시스템은 학생들이 입학해서 졸업할 때까지 단계별로 경쟁력을 키워서 원하는 커리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크게 4단계로 나누어있는데, 1단계는 직무 탐색 단계로 자신이 희망하는 커리어를 설정하고 해당 직무내용을 탐색하

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단계로 직무 경험 단계인데 직무별로 요구되는 역량을 찾아내고 교과 및 비교과 과정에 매핑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하게 됩니다. 제3단계는 현장 실습 단계로서 현장의 직무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인턴 및 현장실습 기회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마지막 4단계는 취업 준비단계입니다. 해당 기업에 대한 최종 목표 커리어를 달성하기 위한 그간의 단계별 경력을 종합하는 게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본인 이 원하는 진로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Q. 학과에 누리비버 서포터즈가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A. 누리비버 부산 관광 서포터즈는 관광학부의 대표적인 대외활동입니다. 부산지역의 숨은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SNS를 통해 홍보하고 관광지의 수용 태세 개선을 위한 제안을 통하여 부산지역의 관광 발전에 직접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기관이 부여하는 활동 미션을 수행하면서 각 기관이 부산지역 관광 홍보나 외국인 유치 과정에 기여하는 어려움을 해결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산학모델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Q. 학과가 센터 산업단지에 있는데 어떤 이점이 있나요?

A.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센터 지역은 관광 유관기관들이 많이 있고 IT 관련 기업들도 많아 학생들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학협력 활동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대학과 바로 옆에 부산관광공사와 한국관광공사 부산 울산지사가 있고 벡스코와 부산관광 마이스 진흥회 등과 같은 MICE 조직들이 있어서 이들 기관과 수시로 접촉하며 산학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관광 경영-컨벤션 학과를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A. 관광산업은 미래의 희망산업입니다. 전 세계 3대 산업은 석유산업, 자동차 산업 그리고 관광산업입니다. 우리의 미래 희망인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면 동서대학교 관광학부를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태연 수습기자

UN프로젝트 어디까지 해봤니?

Q College 학생들의 SAP Global USA 도전기!



▶ SAP Global USA에 선발된 Q College 학생들

우리 대학의 SAP Global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발된 Q College 학생들이 현재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St. Mary's University'에서 수업을 듣고 있다. 또한, 현지에서 있는 세종학당 학생들과의 글로벌 튜터링뿐만 아니라 UN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 대학의 학생들만을 위한 UN프로젝트를 진행했다.

SAP란, 우리 대학이 자랑하는 학점인정 어학연수 프로그램으로, 유학이나 해외 연수의 꿈이 있으나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미국과 중국, 일본에 소재한 해외 캠퍼스 및 자매 대학에서 외국어는 물론 현지문화체험과 전공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최고의 글로벌 학습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올해 2월까지 10명의 학생을 5개 조로 나누어 UN이 선정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를 주제로 팀별 발표를 진행했다. 이 발표를 통해 SDGs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었으며 더 나아가 'UN의 17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영어로 발표하고 피드백을 받는 기회를 가졌다. 원활한 UN프로젝트를 위해 Eurasia 재단의 정준곤 박사의 Texas A&M 강연과 UN의 공보관인 Omar Hernandez 특강도 진행했다.

이후 3월부터는 그룹 프로젝트가 아닌 개인 프로젝트로 전환됐다. 그리고 경쟁을 통해 10명의 학생 중 5명의 학생을 선발해

최종 발표를 진행했다. UN프로젝트 최종 발표는 미국 시간으로 4월 29일 오후 4시에 UN 임원인 Vincenzo Pugliese의 강연을 시작으로 우리 대학 큐칼리지 학생들의 발표 및 피드백 순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우리 대학의 큐칼리지(Q College)는 UN과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미국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까지 SAP Global 프로그램을 확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대학의 큐칼리지(Q College)는 스스로 도전과제를 정하고(Question), 그 답을 찾아가면서(Quest), 빠르게 성장하는(Quantum Jump) 인재를 키우기 위한 부커 양성 도전 스펙을 자랑하는 세상에 없던 대학의

대학이다. '부커 양성 도전 스펙'을 목표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을 선발해 전공을 통해 자신의 '메인 캐릭터(본격)'를 만들어가면서, 큐칼리지를 통해 창업, 창작, 사회문제 해결 등을 목표로 두고 있다. 또한, 부산, 아시아, 미국을 오가며 자유롭게 도전하고 학점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미국, 아시아, 부산을 거점으로 각 도시에서 학기동안 자기주도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국가별 협력대학 교수진과 Q College의 코치진의 온·오프라인 코칭을 통해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한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바텐딩도 지속가능합니다!

페르노리카 코리아의 '지속가능한 바텐딩' 교육에 참여



▶ '지속가능한 바텐딩' 교육 현장

지난달 5일, 우리 대학의 선택캠퍼스에서 글로벌 와인 및 스피릿 기업인 '페르노리카 코리아(Pernod Ricard Korea)'가 호스피탈리티 산업 전반에 지속가능성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제공하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바텐딩(The Bar World of Tomorrow)' 전문 교육에 우리 대학의 호텔경영학과 재학생 중 인 19세 이상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바텐딩' 교육은 파르너시들과 함께 지속가능성을 실천하기 위한 페르노리카 그룹의 프로그램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개념은 물론, 바 운영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한 방법을 제안한다. 책임 음주의 중요성과 실천 방법 또한 제공하고 있다.

우리 대학의 호텔경영학과는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제공하는 금번 교육을 통해 호스피탈리티 산업 전반에서 지속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하나의 문화로 구축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이번 교육의 참여를 결정했다'라며, 최근 화두가 되고있는 ESG 경영의 초석이 되는 지속가능성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호스피탈리티 기업들과 산학협력 관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활동들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 교육에 참석한 한 학생은 "교육 이후 호스피탈리티 산업의 미래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고, 호스피탈리티 기업들이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까지 공유할 수 있어 진로설정 및 취업경쟁력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됐다"라며, '지속가능한 바텐딩' 교육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조수연 기자
noeyusohc@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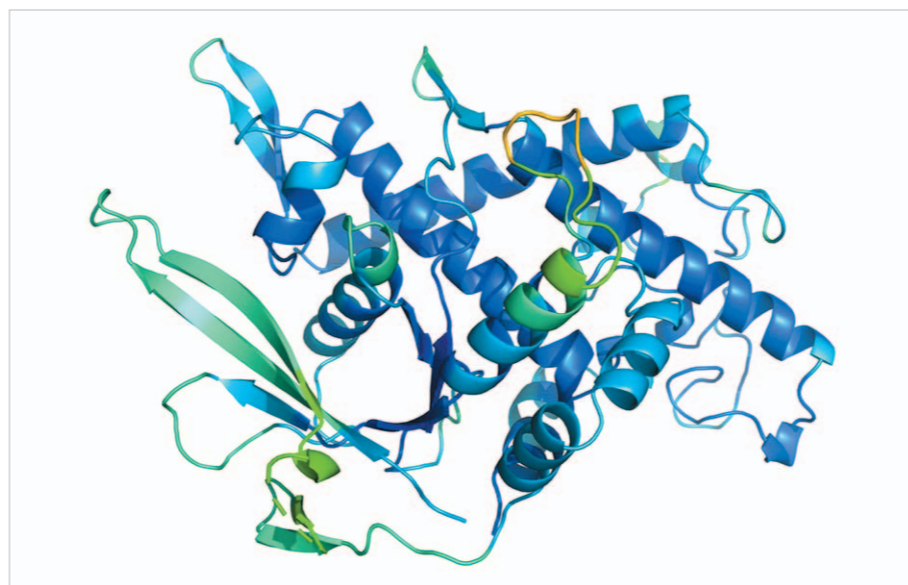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

우리 대학의 발명이야기



▶ Laboratory

▶ 사진출처 - Pexels



▶ 단백질의 3차원 구조

▶ 사진출처 - Deepmind



▶ Smart Label Package

5월 19일은 발명의 날이다. 5월 19일로 정한 이유는 축우기의 반포 일이 1441년(세종 23) 4월 29일(양력으로 5월 19일)인 것에 연유한 것이다.

발명은 우리 일상을 변화시킨다.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는 TV, 라디오, 전화기, 사진기 등 각각의 역할을 하는 하나의 기계였지만,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스마트폰이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이메일, 웹브라우저, 인터넷 쇼핑, TV와 라디오 시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나의 발명이 우리의 일상을 바꾼 것이다. 이런 생활에 영향을 주는 발명과 함께 현재의 과학 발명은 어디까지 도달했을까?

루게릭병 환자의 소통

유명 과학 저널인 Nature에서 최근 근위축성측색경화증(ALS)이라고 불리는 병인 루게릭병에 걸려 소통이 힘든 환자가 뇌 신호만으로 의사소통에 성공했다는 놀라운 연구가 발표됐다. 루게릭병의 질환

초기에는 근육의 약화가 시작되며 이후 1~5년에 걸쳐 모든 종류의 자발적 움직임이 불가능해진다. 여기에는 걷기, 말하기, 삼키기, 숨쉬기 등이 포함되며, 결국 숨쉬기에 관여하는 근육이 작동하지 못해 사망에 이른다. 대부분의 경우 감각 및 인지 기능에는 영향이 없어, 환자가 자신에게 점차 일어나는 상황을 지각하게 된다.

이러한 병을 앓은 인물은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 중 한 명인 스티븐 호킹이다. 스티븐 호킹은 21살에 루게릭병을 진단받았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 병을 이겨냈다. 그는 일상생활에서 눈동자나 미세한 얼굴 근육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의사소통 기계를 사용했다. 이 의사소통 기계를 통해 기계음으로 사람들과 소통했다. 이 발명은 루게릭병이 끝까지 진행돼 능동자마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인즉슨 '몸 안에 완전히 갇혀버린 상태(Completely locked-in state)'라 불리는 막막한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최초로 뇌 신호만을 추출해서 의사소통에 성공한 연구다. 연구의 제목은

'정각 신경 피드백 훈련을 통해 활성화된 완전히 잠긴 환자의 피질 내 신호를 사용한 맞춤형 인터페이스'다. 현재의 과학은 루게릭병이 완전히 진행된 환자와 소통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 이런 수많은 단계를 거치지 보면 연젠가 불치병이라 불리는 병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병을 극복하는 기술

바이러스에 안 걸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세포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세포와 안과 밖을 연결하는 안테나를 '막단백질'이라 부른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막단백질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다. 그런데 현재 신약은 모두 막단백질을 연구하여 나온다. 예를 들어 코로나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는 막단백질을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오미크론과 같은 변종도 막단백질을 공

략한다면 막을 수 있고, 이게 제대로 연구된다면 암도 치료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 중 '인간 막 단백질 접합의 직접 관찰을 통한 접합 경로 규명'이라고 하는 이 연구는 자석에 힘을 아주 강하게 줘서 단백질을 펴고 다시 자석을 약하게 해서 다시 접는 기술이다.

이 연구에서 막단백질을 완전히 풀어낸 뒤 다시 힘을 낮춰 나선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하나의 막단백질이 접히는 현상을 처음으로 관측하는 데 성공했다.

한자의 부수를 알고 쓰면 쓰기 쉬운 것처럼 단백질의 형성 과정을 알면 된다면 치료제 연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다세포 생물들은 세포 안에 자살 기능이 탑재돼 있다. 암은 이러한 자살 기능을 막아 무제한 증식해 형성되는 악성종양이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 막단백질 구조를 완벽하게 해석하게 된다면 이런 자살 기능을 다시 활성화해 암들이 증식하지 않고 없어지게 만들 수 있다.

우리 대학의 발명

세상을 바꾸는 것만이 발명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제품들의 디자인도 발명이다. 우리 대학 학생들이 수상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의 수상작 중 하나인 Smart Label Package는 유통기한이라는 개념을 인식하지 못하고, 유통기한의 표기가 작게 되어 있어 우유의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섭취하는 아이들을 방지하기 위해, 우유 패키지에 변온 잉크를 도포해 유통기한인 10일이 지나면 'Milk'가 'ill'(=나쁜, 유해한)로 바뀌는 '스마트 라벨 패키지'를 제안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우유의 상태를 쉽게 알 수 있고, 상한 우유를 마시지 않을 수 있다.

끝맺음 말

발명은 세상을 이롭게 한다. 한정된 자원 속에서 사는 우리는 앞으로 더 많은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코로나

19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질병이 발생할지 모른다. 과학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왔다.

과학자들은 유전자 구조를 분석해 유전자들 가위로 자르고 풀로 붙이는 식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만들고 있다. 또한 우주의 빅뱅 직후 모습과 외계 행성을 탐사하기 위해 인류 역사상 최고 성능을 가진 제미니 웹 우주망원경이 우주에 올라가 있다.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발명을 통해 현재보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료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발명의 날, 스마트폰, 암 Nature - 루게릭병 말기환자 의사소통 동아시언스 - 인간 막단백질 접합경로 첫 규명 주대원 승수기자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으로 오시리아

동화 속 왕국에서 추억을



▶ 롯데월드 어드벤처 조감도

▶ 사진출처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이드맵

▶ 사진출처 -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 롯데월드 어드벤처 가이드맵

▶ 사진출처 -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부산시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위치한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이 지난날 31일 많은 사람들의 기대 속에서 정식 개장해 손님들을 맞이했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롯데월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동화 속 왕국'이라는 테마로 다양한 어트랙션과 공연들이 펼쳐지는 마법과 환상의 세계 속으로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다.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2종 어트랙션을 포함한 다양한 어트랙션 및 국내 수준급의 공연 콘텐츠,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플라즈마 레스토랑 등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오시리아 관광단지의 핵심 랜드마크 공간이다. 서울 롯데월드와 달리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대부분의 시설이 야외에 배치되어 있는 테마파크의 구조를 지녔다. 날씨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점에 있어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동화 속 왕국

로리 여왕이 다스리는 동화 속 왕국을 콘셉트로 잡은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은 6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돼 있다. 테마파크의 중심에 있는 요정 마을을 핑크 폴스 존에 존재하는 대형 나무 '토깅 트리'가 6개 테마존의 스토리를 들려준다. 테마파크의 가장 위쪽에 위치한 로열 가든 존에 존재하는 '로리 캐슬'은 롯데월드 부산의 상징으로 물에 떠 있는 듯한 플로팅 캐슬로 연출됐다. 로리 캐슬에 올라가 뷰를 바라본다면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전경과 함께 부산 기장 앞 바다를 한눈에 담을 수 있다.

신나고 즐거운 어트랙션

테마파크에서 즐길 수 있는 17종의 탑승 및 관람 시설도 롯데월드 부산의 자랑거리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자이언트 디거(Giant Digger)',

'자이언트 스플래시(Giant Splash)' 등 3종 대표 어트랙션은 스릴을 즐기는 방문객들 사이에서 제일 기대하고 있다는 기구로 떠오르고 있다. 자이언트 디거는 원형 롤러코스터로 최고 속도 105km/h로 약 1km의 트랙을 빠르게 주행하며 마주하는 3번의 360도 회전 구간에서는 온몸이 짜릿해지는 극강의 속도감을 느낄 수 있다. 자이언트 스플래시 또한 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워터 코스터로 높이 44.6m에서 2000톤의 물이 담긴 수로를 향해 100km/h로 급강하하며 엄청난 물보라를 일으킨다. 외부에서 지켜보는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물바라를 내릴 수 있을 만큼 거대한 힘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의 흥미로운 점은 테이블에 앉아 주문을 하면 롤러코스터의 레일을 따라 음식이 내려오는 '푸드 드림' 레스토랑이 있어 이는 먹는 재미에 보는 재미를 더한다. 스릴 넘치는 기구만 보유한 것이 아닌 유아를 동반한 가족 이용객을 위해 어린이 전용 어트랙션

6종도 선보이고 있다. 동물농장 테마를 지니고 있는 조이풀 메도우 존에는 '아기돼지 빌버카', '날아라 꼬보', '황모와 함께 탈 수 있는 '쿠기 열차'를 포함한 어린이 전용 어트랙션 6종을 만나 볼 수 있다.

눈과 귀가 즐거운 공연과 퍼레이드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에는 2개의 공연과 2개의 퍼레이드를 운영하고 있다. 처음으로 소개할 공연인 여성 8인조 브라스 밴드인 '매직 페어리 밴드'의 환상적인 하모니는 마법의 숲 속 로열 가든 분수광장에서 즐길 수 있다. 클래식과 색소폰, 트럼펫 등의 다양한 금관악기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감상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연은 황금 퍼레이드를 찾아 세계를 여행하는 로리와 친구들의 모험으로 가든 스테이지에서 이루어진다. 다음으로 소개할 퍼레이드는 마법에 걸린 매직 포레스트를 구한 용감한 기사 로리를 위한 축제 또한 분수광장을 한 바퀴 돌면서 이루어지는 공연으로

30분 동안 즐길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매직 포레스트에서 펼쳐지는 작은 파티인 미니 퍼레이드는 퍼레이드 출연자들 모두와 함께 즐길 수 있다. 공연과 퍼레이드는 기상 변화 및 파크 상황에 따라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운휴 정보를 공식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한다.

우대혜택

개장과 동시에 다양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어 가격에 부담을 가지지 않고 놀러 오는 방문객이 많다. 롯데카드 사용이라면 정산가에서 반값 할인이 추가 할인까지 적용된 가격에 입장을 할 수 있다. 롯데카드 외에도 PAYCO 프로모션 또한 이달 말까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동반 입장 시에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산에 거주하는 시민이라면 주차 우대와 우선 탑승이라는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을 끊어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롯데월

드의 5월에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 말고 모두 혜택을 받아 즐거운 기억을 만들기를 바란다.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오시리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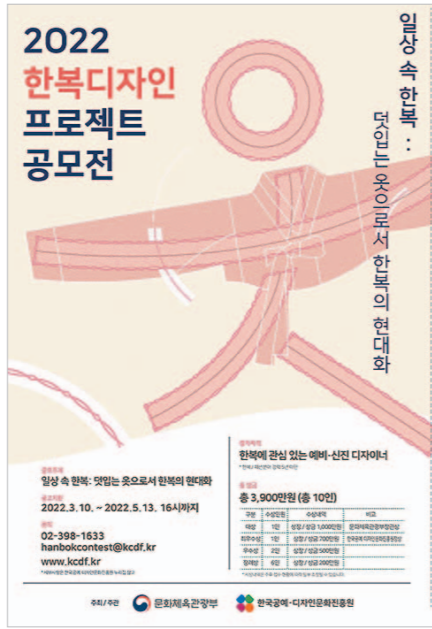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달 5월에 수많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롯데월드로 온다면 행복한 기억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놀이 기구와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이기에 지속적으로 롯데월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가족과 친구, 연인들끼리 즐거운 추억을 남기고 싶다면 눈과 귀가 즐거운 퍼레이드와 공연, 몸이 신나는 다양한 놀이 기구와 입이 행복해질 수 있는 다양한 먹거리들로 가득한 롯데월드로 올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

자료출처 : 롯데월드 어드벤처 부산 김진희 승수기자

참여하면 유익한 '대외활동·공모전'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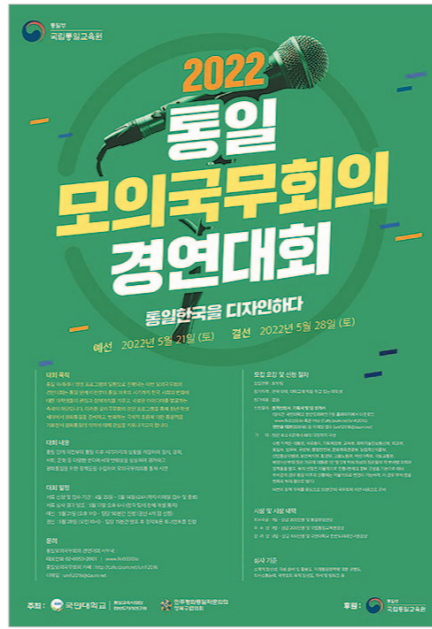
■ 제8회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다시, 봄!>
 • 접수기간 : ~2022. 05. 11(수)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사진/영상/UCC



■ 2022 한복 디자인 프로젝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13(금)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기타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디자인/캐릭터/웹툰, 예체능/미술/음악, 기타



■ 2022 여성폭력예방 홍보 콘텐츠 교육과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13(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디자인/미술, 사진/영상/UCC, 정치/정책/사회



■ 제8회 통일모의 국무회의 경연대회
 • 접수기간 : ~2022. 05. 14(토)
 • 응모대상 : 대학생
 • 공모분야 : 기획/아이디어, 학술



■ 2022 부산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 가게 찾기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15(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문화/영화/문학, 네이밍/슬로건



■ 제2회 컴포트랩 영상 공모전 : Real Comfort
 • 접수기간 : ~2022. 05. 15(일)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사진/영상/UCC



■ 2022 부산 마약류 폐해 알림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20(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사진/영상/UCC



■ 바른 역사 도서 대한사랑 독후감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20(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문화/시나리오



■ 제2회 은평문화관광 플랫폼 사진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20(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광고/마케팅, 영상/UCC/사진, 웹/모바일/IT, 예체능/미술/음악, 대외활동/서포터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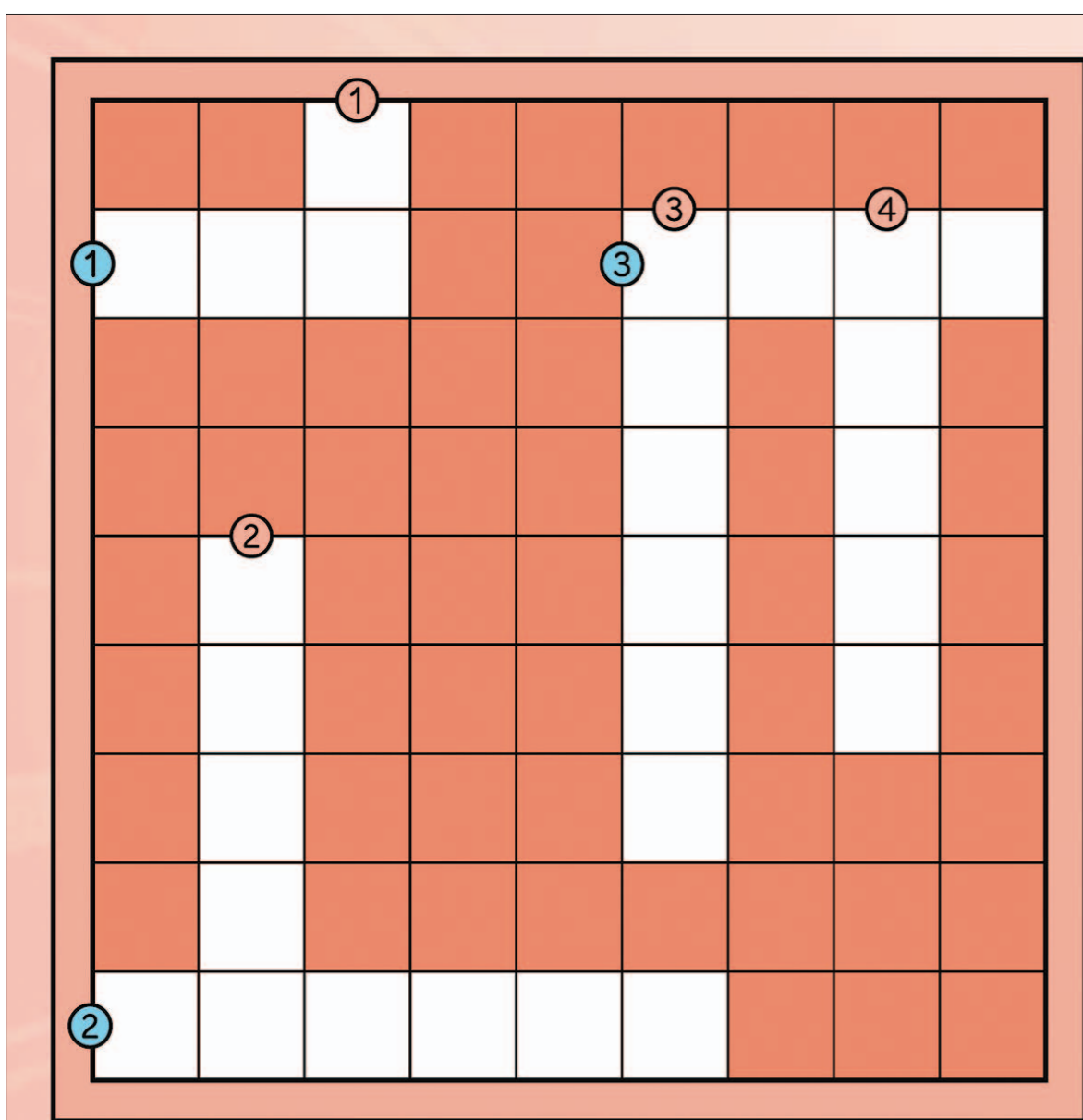
■ 2022 전기 사랑 미디어 콘텐츠 대전
 • 접수기간 : ~2022. 05. 27(금)
 • 응모대상 : 제한없음
 • 공모분야 : 콘텐츠/웹툰, 사진/영상/진, 웹/모바일/IT, 예체능/미술/음악, 대외활동/서포터즈



■ 제 20회 부산 우수 발명인 포상 공고
 • 접수기간 : ~2022. 05. 31(화)
 • 응모대상 : 제한없음 (등분상 거주지 및 학교 소재지 모두 부산)
 • 공모분야 : 과학/공학/IT, 아이디어/기획



■ 웰크론 창립 30주년 기념 침구 텍스타일 디자인 공모전
 • 접수기간 : ~2022. 05. 31(화)
 • 응모대상 : 일반인, 대학생
 • 공모분야 : 디자인/캐릭터/웹툰



- DSU NEWSPAPER - 맞춰봐요 날말퍼즐

- 가로**
- 1 우리 대학의 상징동물이며 수리과에 속하는 대형조류
 - 2 2022년, 우리 대학은 '00 0000'를 맞이했다
 - 3 우리 대학의 교육철학으로, 학교에 들어오기 전과 후의 모습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뜻의 영어 약어
- 세로**
- 1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인격의 터전으로 삼는 교육이라는 뜻
 - 2 개교 30주년을 맞이한 우리 대학의 이름
 - 3 '전에', '~하기 전에'라는 뜻의 영어 단어
 - 4 '후에', '~한 후에'라는 뜻의 영어 단어

- 참여방법**
- 1 날말퍼즐을 잘라 산학협력관 대강당 입구에 있는 신문사 건의함에 넣어주세요
 - 2 정답이 잘 보이게 사진을 찍어 아래의 번호로 보내주세요!
 편집국장: 010-4915-8702
- 5월 30일까지 날말퍼즐에 참여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당첨자는 5월 31일에 개별 통보합니다.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 * 학 과:
 * 학 년:
 * 이 름:
 * 연락처: